

한문 원주용 선생님의 ★ ★ 합격 비법



한문 원주용

2025학년도
올킬 적중 내역

선생님을 향한 레이스⁼³₌₃
한문 원주용 선생님과
함께라면 단기 합격할 수 있어요.

▼선생님 자료 더보기▼

1) 희소/샘플러스 :

<https://www.ssamplus.com//>

2) 다음 카페 : <http://cafe.daum.net/dnjswndyd>

2025학년도 1차 한문 임용고시 적중

1. 다음은 2022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의 고등학교 '한문'에 따른 '한자와 어휘'의 <활동 결과물>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대화>이다.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것을 쓰고, <활동 결과물>을 참고하여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것을 쓰시오.

[2점]

<활동 결과물>

주술 관계	수식 관계	(㉠)
日沒	白眉	美醜

- ① 日沒은 '해가 지다'로 풀이되고, '해'는 주어, '지다'는 서술어이므로 주술 관계이다.
- ② 白眉는 '흰 눈썹'으로 풀이되고, '희다'는 수식어, '눈썹'은 피수식어이므로 수식 관계이다.
- ③ 美醜는 '아름다움과 추함'으로 풀이되고, 서로 상대되는 의미를 가진 한자가 나란히 놓여 이루어진 단어이므로 (㉠)이다.

<교사와 학생의 대화>

교 사: 결과물 작성을 마쳤으면 학습 소감을 각자 발표해 볼까요?
 학생 1: 제가 말해 보겠습니다. 저는 주술 관계, 수식 관계, (㉠) (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찾아 적어 보니 단어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풀이할 수 있었습니다.
 교 사: 단어를 형성하는 의미 요소들 사이의 결합 관계를 잘 파악한 것 같군요.
 학생 2: 저는 단어를 이루고 있는 한자들이 어떻게 결합하는지 그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생각하며 풀이해 보니, 한자 어휘를 쉽게 기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한자 어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 사: 네, 좋습니다. 단어의 짜임을 (㉡) 위해서는, 단어를 형성하는 의미 요소들 사이의 결합 관계를 학습한 후, 단어의 짜임을 이해하여 언어생활과 한문 학습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활동을 마치겠습니다.

[A형 1번] - 선행모의고사 14회 A형 7번

7. 다음은 교사가 2022 개정 고등학교 한문 교육과정에 따라 작성한 <수업 계획>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수업 계획>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어의 짜임을 구별한다. ○ 문장의 구조와 유형을 구별한다. ○ 글을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지도 중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어의 짜임을 지도할 때에는 단순히 짜임이 무엇인지를 묻기보다는 단어의 짜임을 이해하고 한문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둔다. ○ 문장의 구조를 지도할 때에는 문장을 이루는 주성분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 문장의 구조를 구별하고 문장의 독해에 활용하도록 한다. ○ 글의 풀이를 지도할 때에는 문장 성분의 배열에 나타나는 일정한 순서를 분석하고 우리말 어순과 비교하여 문장의 독해에 활용하도록 한다.
수업 자료	<p>趨向自正者 才藝雖鮮 有時可用 趨向既不正 才藝雖多 適足以助爲亂 ㉠凡選舉之求材藝者 爲其可以理人也 材藝雖未多 以正直爲本者 以其材有時能理也 材藝雖有餘 其所趨向 未免邪僞 則㉡理人姑捨 反致㉢紊亂 故㉣擇人者先觀趨向之邪正 不可只取其材藝也 - 崔漢綺, 「趨向正不正」-</p>

<작성 방법>

- 밑줄 친 ㉠을 어순에 맞추어 바르게 풀이할 것.
- 밑줄 친 ㉡, ㉢의 문장의 구조를 순서대로 쓸 것.
- 밑줄 친 ㉣의 단어의 짜임을 쓸 것.

5. 다음은 2022 개정 고등학교 '한문 교과' 원거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3호)에 따라 작성된 <교수·학습 지도안>의 일부와 <학생 활동 결과물>, <수업 내용>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구분	내용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본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 글을 읽고 있는 과정에 결함된 일제 대입하여 설명할 수 있다.
성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의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용과 주제를 파악한다. ○ 글을 읽고 자신의 삶에 대입하여 반영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지도안의 취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지와의 전통적 원천을 통해 권위에서 이해하고 반영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동아지 관련 주제에 관련된 내용과 주제를 담고 있는 자료를 읽고 이해하여, 글이 안에서 반영적으로 하는 바탕을 잘 세밀 수 있도록 지도한다.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저 학습 확인 ○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수업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無)之(之) 則(則) 無(無) 不(不) 人(人) 則(則) 無(無) 心(心) 不(不) 人(人) 則(則) 無(無) 知(知) 『孟子』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 주도로 글의 주제를 찾는다. ○ 오해를 갖았던 일 가운데 '수업 자료'의 주제와 관련하여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본다.

<수업 내용>

교 사: 수업 자료에 나타난 두 가지 비교 대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학생 1: 저는 (㉠) 和(和)와 (㉡) 和(和)라고 생각합니다.
 (㉠) 和(和)가 남과 남과 같지 않으면 속상해하거든요.
 (㉡) 和(和)가 남과 같지 않으면 속상해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교 사: 그렇군요. 대항몽의 사상은 글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다가 결국 농작의 열악한 할 것을 농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오늘 보실 것 같은 수업 자료의 주제와 관련하여 작성한 글은 대체로 발표해 볼까요?
 교 사: 네.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로 드려난 것보다 못하게 하는 아들 한방이 더 좋더라는 말을 이야기해 수업 내용. 한문 교과와 자신의 삶에 대입하여 스스로를 돌아보는 태도를 기르면 좋겠습니다.

<작성 방법>

○ <교수·학습 지도안>과 <학생 활동 결과물>을 참고하여 '문제 1'과 관련된 교수·학습 방법을 잘 찾.
 ○ 밑줄 친 ㉠에 해당하는 내용을 <교수·학습 지도안>의 '문제 1'과 <수업 내용>에서 찾아 서술할 것.
 ○ 중요어의 심화(心)에 해당하는 것을 <교수·학습 지도안>의 '수업 자료'에서 찾아 순서대로 ㉠과 ㉡ 잘 찾.

구분	내용
소재	천주물려다 인가자 많은 내 책
관련 문헌	無(無) 不(不) 人(人) 則(則) 無(無) 心(心) 不(不) 人(人) 則(則) 無(無) 知(知)
내용	나는 어떤 책을 할 때 내 마음을 유선으로 생각하는 것만 있는 법이다. 내 책을 그릴 때, 글로 쓰려면 내 마음이나 친구들의 사생활이 드러나고 싶지 않아요. 내 책이 내 마음과 글로 풀려야 할까 생각해 봤다. 그래서 내 책이 내 마음과 친구들에게 더 읽히게 많은 마음을 보았어. 내 책은 마음을 내담 때 차이를 느끼고 싶어. 어떤 것이든, 것을 잘 쓰고, 글자가 좋은 나를 만들어 줘.

[A형 5번] - 모의고사를 통한 고득점 획득하기 4회 B형 3번

3. 다음은 2022 개정 고등학교 한문 교육과정에 따른 '가치.태도' 수업 계획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수업 계획>

구분	내용
단원명	선인들의 지혜
교과역량	문장 이해, 인성 함양
성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의 구조와 유형을 구별한다. ○ 글을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 글에 담긴 선인들의 지혜를 이해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성을 함양한다.
수업자료	<p>崔北七七者 世不知其族系貫縣 破名爲字 行于時...(중략)...嗜酒 喜出遊 入九龍淵 樂之甚 飲劇醉 或哭或笑 已又叫號曰 天下名人崔北 當死於天下名山...(중략)...人有求爲山水 畫山不畫水 人怪詰之 七七擲筆 起曰 唉 紙以外 皆水也 -南公轍, 「崔七七傳」-</p>
학습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풀이하기 - ㉠문장의 유형은 話者가 나타내는 語氣에 따라 분류하는데, 감탄문은 사물이나 사실에 느낌을 받아 슬픔, 기쁨, 놀라움 등의 감정을 나타내는 문장임에 유의한다. -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破名: '술목' 관계이다. *劇醉: '놀며 취하다'라는 의미이다. *天下名人崔北當死於天下名山: '주술보' 구조이다. *畫山: '병렬' 관계이다. *七七擲筆: '주술목' 구조이다. ○ ㉢최적의 글을 읽고 한 문장을 골라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는 활동하기

<작성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밑줄 친 ㉠에 해당하는 것을 '수업 자료'에서 찾아 설명할 것. ○ 밑줄 친 ㉡에서 오류 2가지를 찾아 바로잡을 것. ○ 밑줄 친 ㉢에 해당하는 교수 학습 방법을 쓸 것.

6. 다음은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에 따라 작성한 고등학교 '한문 1' <수업 계획>과 <활동 결과물>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수업 계획>

구분	내용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을 바르게 풀이할 수 있다. ○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언어 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수업 자료	臣本布衣 躬耕於南陽 苟全性命於亂世 不求聞達於諸侯 先帝不以臣卑鄙 猥自枉屈 三顧臣於草廬之中 諮臣以當世之事 由是感激 遂許先帝以驅馳 - 「三國志」 -		
성어의 배경	후한 말엽, 유능한 참모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유비가 남양에 은거하던 제갈량의 존재를 알게 되어, 예물을 갖춰 세 번이나 그의 초가집을 방문한 끝에 그를 군사(軍師)로 모셔올 수 있었다. 이 글은 제갈량이 첫 번째 북벌을 나서기 전, 후주 유신에게 바친 글의 일부이다.		
원문 풀이	원문	풀이	
	臣本布衣 躬耕於南陽 苟全性命於亂世 不求聞達於諸侯	신(제갈량)은 본래 벼슬하지 않은 신분으로 몸소 남양에서 농사를 지으며 (㉠)	
	先帝不以臣卑鄙 猥自枉屈 三顧臣於草廬之中 諮臣以當世之事	선제(유비)께서 신을 보잘것없다고 여기지 않고, 문에 넘치게도 자신을 굽혀 초가집으로 세 번이나 신을 찾아 주시고 신에게 당세의 일을 자문하였습니다.	
由是感激 遂許先帝以驅馳	이로 멀미암아 신(제갈량)이 감격하여 마침내 선제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성어의 의미	성어	겉뜻	속뜻
	三顧草廬	세 번 초가집을 찾아가다.	(㉡)

<활동 결과물>

성어를 활용한 (㉢)	학생 1: 축구 대회를 앞두고 수비를 잘하는 친구를 삼고초려하여 데려왔습니다. 학생 2: 제 꿈은 TV프로그램의 PD가 삼고초려하여 성취할 정도로 유명한 연예인이 되는 것입니다. 학생 3: 국가나 단체의 장은 무엇보다 삼고초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에 들어갈 말을 '원문'을 참고하여 쓸 것.
- 괄호 안의 ㉡을 <수업 계획>의 '성어의 배경'과 <활동 결과물>에 근거하여 쓸 것.
- 괄호 안의 ㉢에 들어갈 교수·학습 방법을 <활동 결과물>을 참고하여 쓸 것.

[A형 6번] - <중국 산문> 諸葛孔明(181-234) 「出師表」, 「後出師表」

* 밑줄 친 ㉠, ㉡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서술하시오.

臣本布衣 躬耕南陽 苟全性命於亂世 不求聞達於諸侯 先帝不以臣卑鄙 猥自枉屈 三顧臣於草廬之中 咨臣以當世之事 由㉠是感激 遂許先帝以驅馳

9. 다음은 2022 개정 한글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고등학교 '한문'에 따라 작성한 <수업 계획>의 일부와 <수행평가 안내문>의 일부이다. <활동 결과물>을 참고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수업 계획>

구분	내용
학습 목표	○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고 언어생활에서 (㉠)에 맞게 활용하여 소통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지도상의 유의점	○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개별화된 맞춤형 활동으로 의미 있는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어휘를 활용하여 소통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수업 자료	○ 梨園, 梨園, 義士, 講書, 史冊, 思考, 蘇故, 事故

<수행평가 안내문>

수행평가 안내

1. 활동 소개: 어휘를 설명하는 카드 뉴스를 제작한 뒤 발표.
2. 제작 방식: 언어생활에서 혼동하기 쉬운 어휘를 '수업 자료'에서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제작
3. 활동 과정: 어휘 선정 → 자료 조사 → 제작 → 발표
4. 유의 사항: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도록 할 것.

<활동 결과물>

어휘	가족 뉴스
梨園	"의사의 치료로 건강을 회복한 할머니" 梨園에 걸린 할머니는 의사의 치료를 받아 건강을 되찾았다.
어휘	역사 뉴스
(㉠)	"음병길 의사의 행세" 의로운 의사 음병길은 거사를 앞두고 공개 행세하였다.
어휘	생활 뉴스
事故	"고속도로 대형 사고" 지난밤에 내린 폭설로 일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다.
어휘	국정 뉴스
(㉡)	"현대판 사고 '나리기록관' OOS이에" 중요한 정부 문서와 역사 자료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기록 관리 시설이 OOS이에 들어선다.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에 들어갈 말을 <수업 계획>의 '수업 자료'와 <활동 결과물>을 참고하여 할 것.
- 수업에 사용된 교수·학습 방법을 <수행평가 안내문>과 <활동 결과물>에 근거하여 할 것.
- 괄호 안의 (㉡) 안에 들어갈 어휘를 <수업 계획>의 '수업 자료'에서 찾아 漢字로 쓸 것.

[A형 9번] - 모의고사를 통한 고득점 획득하기 2회 A형 6번

6. 다음은 2022 개정 고등학교 '언어생활과 한자'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과 관련하여, 교사가 작성한 <교수.학습 계획>과 수업 후 학생들이 작성한 활동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교수.학습 계획>

학습목표	○ 한자의 음과 뜻을 파악한다. ○ (㉠) ○ 맥락에 맞는 어휘 활용으로 공동체에서 협력적 소통을 실천한다.
본문	骨折 蒼空 銳利 牧畜 雪糖 似而非 登龍門 手(㉡)物 柱狀節理 炭水化物
학습활동	○ 음과 뜻 파악하기 - 蒼: 창, 푸르다 - 畜: 축, 짐승 ○ 독음 파악하기 - 銳利: 예리 - 雪糖: (㉠) - 登龍門: 등용문 ○ 의미 파악하기 - 似而非: 같으로는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름 - 手(㉡)物: 교통편에 손쉽게 부칠 수 있는 작고 가벼운 짐 ○ 맥락에 맞는 어휘 활용 - 생략

10. (가)~(다)를 출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가), (다)의 소재를 쓰고, (가), (다)의 장르를 특징짓고 있는 공통된 수사법을 서술하시오. [4점]

- (가) 天君卽大位元年 登靈臺御明堂 泊乎無爲 滄乎自持 蕩蕩乎無能名焉 君之民鼓腹而遊 咸曰 一哉吾君 越三年 君之德漸不克于初 有盜乘其弊 侵凌我 殘害我 梏亡我 翦劉我 年年而賊日滋 君之國幾不振 君遂遷于荒 周流四海 若晉公子之在外者十餘年 時或有思歸之念 隱然而萌 油然而生 盜賊縱橫 道路擗隔 有志未就 且如赤子之早離鄉 迷不知其歸 適有一人自稱惺惺翁 稍除國賊 喚君而歸 復卽于大位
- (나) 王怒曰 汝不從我教 則固不得爲吾女也 安用同居 宜從汝所適矣 於是 公主以寶劍數十枚 繫肘後 出宮獨行 路遇一人 問溫達之家 乃行至其家 見盲老母 近前拜 問其子所在 老母對曰 吾子貧且陋 非貴人之所可近 今聞子之臭 芬馥異常 接子之手 柔滑如綿 必天下之貴人也 因誰之侮 以至於此乎 惟我息不忍飢 取榆皮於山林 久而未還
- (다) 生姓楮 名白 字無玷 會稽人也 漢中常侍尙方令蔡倫之後 生之生也 浴蘭湯 弄白璋 藉白茅 故濯濯也 其同母弟兄十九人 皆與之親睦 造次不失其序 性本精潔 不喜武人 樂與文士游 中山毛學士 其契友也 每狎之 雖黠汚其面 不拭也 學而通天地陰陽之理 達聖賢性命之源 以至諸子百家之書 異端寂滅之教 無不記識 微之班班可見

[A형 10번] - <삼국-고려 한문학사>

* 羅末麗初(9-11c); 傳奇小說(「調信」, 「金現感虎」 등)→(고려초; 정통한문학인 詩文중시, 「溫達傳」 「嘉實」로 유지)→무신란이후; 假傳(「鞠醇傳」, 「孔方傳」 등)

武臣亂後 實用的 목적이 아닌 創作이라는 순수한 목적으로, 擬人을 표현수단으로, 작가의 창의에 의한 의도대로 허구화함으로써 戒世懲人을 목적으로 한 假傳이 등장.(假傳體, 擬人小說, 敎述文學, 假傳體小說, 擬人傳奇體, 假傳 등으로 부름): 임춘 「鞠醇傳」, 「孔方傳」, 이규보 「鞠先生傳」, 「淸江使者玄夫傳」, 이곡 「竹夫人傳」, 이첨 「楮生傳」 등.-宋은 元祐년간(1086-1093)을 전후하여 당쟁이 치열해지자, 문인들이 산림에 은거하여 글로써 때로는 소일하고, 때로는 자신의 억울함을 달래고 사회의 모순을 고발하였는데, 이것이 詩話(歐陽修의 『六一詩話』가 효시)와 假傳(韓愈의 「毛穎傳」이 효시)이다. 武臣亂後 高麗의 文人들도 이러한 입장에 공감하게 됨.

11. 밑줄 친 ㉠, ㉡이 의미하는 바를 각각 적고, 밑줄 친 ㉢, ㉣에 드러난 시인의 생각을 각각 서술하시오. [4점]

(가)
 ㉠俗客不到處 登臨意思清
 山形秋更好 江色夜猶明
 白鳥孤飛盡 孤帆獨去輕
 ㉡自慙蝸角上 半世覓功名
 - 金富軾, 『甘露寺次惠遠韻』 -

(나)
 曾照蛾眉粉面新
 十年奩底久埋塵
 皎然本質元無損
 ㉢刮垢磨光欠一人
 - 元天錫, 『杜門覽古 寓物興懷 此不遇時者之所爲也 因賦古器 作四絕以寓歎』 -

[A형 11번] - 『고려시대 한시읽기 83쪽, 390쪽』

42. 「甘露寺次惠素韻」 金富軾

俗客不到處 속객들은 이르지 못하는 곳이라
 登臨意思清 올라오니 마음이 맑아지네
 山形秋更好 산 모양은 가을이라 더욱 좋고
 江色夜猶明 강 빛은 밤인데도 더 환하구나
 白鳥孤飛盡 흰 새는 훨훨 날아 가버리고
 孤帆獨去輕 외로운 배는 홀로 가볍게 떠나네
 自慙蝸角上 스스로 부끄럽구나, 달팽이 뿔 위에서
 半世覓功名 반평생을 공명 찾아 헤맸으니

<교감> 【기아】에는 甘露寺次惠素韻이 甘露寺次韻으로 되어 있음

<주석> 【甘露寺(감로사)】 개성 북쪽 五峰山 밑에 있는 절 【更】 더욱 갱 【帆】 돛단배 범 【蝸角(와각)】 달팽이의 뿔로, 【莊子】에 의하면 왼쪽 뿔위에는 觸國이, 오른쪽 뿔위에는 蠻國이 서로 다투어 편안한 날이 없었다고 함 【覓】 구하다 떡

<감상> 이 시는 감로사에 올라 詩僧 惠素가 지은 시에 차운한 시이다.

198. 「杜門覽古 寓物興懷 此不遇時者之所爲也 因賦古器 作四絕以寓歎」 元天錫

古鏡

曾照蛾眉粉面新 일찍이 눈썹 비취 화장 얼굴 새롭더니
 十年奩底久埋塵 십년 동안 경대 아래서 오래 먼지에 묻혔네
 皎然本質元無損 밝은 본바탕은 원래 손상되지 않았건만
 刮垢磨光欠一人 먼지 털고 광을 내는 한 사람이 없구나

<주석> 【蛾眉(아미)】 여자의 빼어난 눈썹 【粉】 분을 바르다 분 【奩】 경대 립 【埋】 묻다 매 【皎】 밝다 교 【刮】 닦다 괄 【垢】 티끌 구 【欠】 모자라다 흠

<감상> 이 시는 1392년에 쓴 시로, 오래된 기물이 쓰이지 않고 버림받은 것을 통하여 자신의 탄식하는 심정을 담고 있다.

12. 밑줄 친 ㉠, ㉡을 번역하시오. [4점]

竹似賢 何哉 竹本固 固以樹德 君子見其本 則思善建不拔者 竹性直 直以立身 君子見其性 則思中立不倚者 竹心空 空以體道 君子見其心 則思應用虛受者 竹節貞 貞以立志 ㉠君子見其節 則思砥礪名行 夷險一致者 夫如是故 君子人多樹之 爲庭實焉 ... (중략) ... 嗟乎 竹植物也 於人何有哉 以其有似於賢 而人猶愛惜之 封植之 況其眞賢者乎 然則竹之於草木 猶賢之於衆庶 嗚呼 ㉡竹不能自異 惟人異之 賢不能自異 惟用賢者異之 故作養竹記 書于亭之壁 以貽其後之居斯者 亦欲以聞於今之用賢者云

- 白居易, 『養竹記』 -

[A형 12번] - <중국 산문> 白居易(772-846) 「養竹記」

*밑줄 친 ㉠의 특징 4가지를 본문에서 찾아 漢字로 쓰시오.

㉠竹似賢 何哉 竹本固 固以樹德 君子見其本 則思善建不拔者 竹性直 直以立身 君子見其性 則思中立不倚者 竹心空 空以體道 君子見其心 則思應用虛受者 竹節貞 貞以立志 君子見其節 則思砥礪名行 夷險一致者 夫如是故君子人多樹之 爲庭實焉

拔 뽑다 발 體 체득하다(세심하게 살펴 이해하다) 체 夷 평탄하다 이

대나무는 현자와 비슷하니, 왜인가? 대나무 뿌리는 견고하니, 견고함으로써 덕을 심음으로, 군자는 그 뿌리를 보면, 잘 세워 뽑히지 않을 것을 생각한다. 대나무의 성질을 곧으니, 곧음으로써 몸을 세움으로, 군자는 그 성지를 보면, 중립하여 기울지 않을 것을 생각한다. 대나무의 속은 비었으니, 빚으로써 도를 체득하므로, 군자는 그 속을 보면, 응용하여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생각한다. 대나무의 마디는 곧으니, 곧음으로써 뜻을 세움으로, 군자는 그 마디를 보면, 이름과 행실을 다듬어, 평탄하거나 험하거나 일치하게 할 것을 생각한다. 무릇 이와 같기 때문에, 군자들은 대나무를 많이 심어, 뜻을 가득 차게 한다.

*밑줄 친 ㉡에 대해 지은이가 제시한 해결책을 서술하고, 이 글을 지은 의도 2가지를 서술하시오.

居易㉡惜其嘗經長者之手 而見賤俗人之目 翦棄若是 本性猶存 乃刪翳蒼 除糞壤 疏其間 封其下 不終日而畢 於是日出 有清陰 風來 有清聲 依依然欣欣然若有情於感遇也 嗟乎 竹植物也 於人何有哉 以其有似於賢 而人猶愛惜之 封植之 況其眞賢者乎 然則竹之於草木 猶賢之於衆庶 嗚呼 竹不能自異 惟人異之 賢不能自異 惟用賢者異之 故作養竹記 書于亭之壁 以貽其後之居斯者 亦欲以聞於今之用賢者云

翦 자르다 전 刪 제거하다 산 疏 트이다 소 封 높다 봉 貽 주다 이

나는 그것이 일찍 장자의 손을 거쳤으면서도, 속인들의 눈에 천대를 받아, 베어지고 버려짐이 이와 같았으나,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애석하게 여겼다. 마침내 무성하게 가린 것들을 베어버리고, 썩은 땅을 제거하였으며, 그 사이를 소통시키고, 그 아래를 복돋웠는데, 하루가 못되어 끝났다. 이에 해가 나오면, 시원한 그늘이 있고, 바람이 불면, 맑은 소리가 있어, 그리워하고 기뻐서 감우함에 정이 있는 듯하였다. 아! 대나무는 식물이니, 사람과 무슨 상관일 있겠는가? 현인과 유사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사랑하고 아끼워하여, 복돋아주고 심으니, 하물며 그 참 현자에 있어서라? 그렇다면 대나무가 초목에 있어서는 현자가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와 같은 것이다. 아! 대나무는 스스로 특이할 수 없어, 오직 인간만이 그것을 특이하게 대하고, 현자는 스스로 특이할 수 없어, 오직 현자를 등용하는 자만이 특이하게 대한다. 그러므로 「양죽기」를 지어, 정자의 벽에 써서, 후세 이곳에 거처하는 자에게 주고, 또한 지금의 현자를 등용하는 자에게 알리고자 한다.

- 문제지 전체 원수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 모든 문항에는 해답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1. 다음은 2022 개정 고등학교 '한문'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의 '문장' 영역 중 한시를 학습하기 위한 <수업 계획>의 일부와 <수업 내용>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십시오. [2점]

<수업 계획>

구분	내용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시의 특징을 알 수 있다. ○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지도상의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시는 간결한 비유로 된 함축적인 표현이 많다는 것이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적역 단계를 충실하게 거친 후 의미를 통해 한시 속의 함축된 뜻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수업 자료	望野亭中 不須胡蝶行 守翁執行處 遂作後人歌

<수업 내용>

교 사: 이번에는 시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우선, 작품 배경은 어떤가요?
 학생 1: 작품 배경은 눈이 내린 어느 들린던 것 같습니다.
 학생 2: 저는 한자가 가진 뜻을 중심으로 살펴보니, 눈길을 뚫고 들린을 지나가는 사람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학생 3: 저는 발자국이 어지러이 찍힌 들린이 생각나네요.
 교 사: 네, 다양한 의견 같습니다. 시를 읽다 보니 한 편의 그림이 떠오르죠?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해 개인별로 좋아하는 시구를 찾아 부채를 만들 수도 있고, 한시를 읽으며 머릿속에 그려진 것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한시를 고른 후 그에 맞는 그림을 곁들이는 (㉠)을 기획하고 운영해 볼 수도 있겠네요.
 학생 2: 한시와 그림을 함께 친한다면 좋겠네요.
 교 사: 학교 측의 기간에 한문 운영해 볼게요. 지금은 오늘 아침 내가 걸어간 발자국이 (㉡)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성 방법>

- 관호 인의 ㉠에 들어갈 말을 쓸 것.
- 관호 인의 ㉡에 들어갈 내용을 <수업 계획>의 '수업 자료'에 근거하여 쓸 것.

[B형 1변] - 선행모의고사 12회 B형 3번

3. 다음 <자료1>은 2022 개정 고등학교 한문 교육과정에 따른 한문 수업을 위해 흥 교사가 선택한 활동 제재이고, <자료2>는 이 수업에 대한 협의회 대화록이다. <자료1>, <자료2>를 토대로 수업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십시오. [4점]

<자료1> 활동 제재

「臨死絶命詩」 成三問

擊鼓催人命 回頭日欲斜 黃泉無一店 今夜宿誰家

<자료2> 협의회 대화록

흥 교사: 조선시대 성삼문의 한시입니다. '성취 기준'에 따라 수업안을 구상하였습니다.

이 교사: 한시에 관한 내용이군요. 한시를 이해하려면 한시의 詩體, 押韻, 對偶, 한시의 시상 전개 방식을 알아야 주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형식은 오언절구, 운자는 命·斜·家이며, 대우법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흥 교사: 네. 이러한 한시의 형식적 특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성삼문의 한시를 이해하면 좋겠군요.

한 교사: 그리고 이러한 제재의 수업은 자칫 지루한 분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학생들에게 한시를 지어서 그 시들을 모아 시화전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방 교사: 시에 쓰인 정확한 구절풀이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 '擊鼓'는 '복을 침'이고, '欲斜'는 '지려고 하다'이고, '黃泉'은 '누런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끝으로 ㉣이 시는 성삼문이 단종 복위 운동을 하다가 실패하여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지은 즉흥시로, 죽음에 순응하며 지은 시이다.

흥 교사: 감사합니다. 협의된 내용을 고려하여 좋은 수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방법>

- 밑줄 친 ㉠, ㉢, ㉣에서 오류를 찾아 바로 잡을 것.
- 밑줄 친 ㉡에 적용된 교수·학습 방법을 쓸 것.

정답 ㉠ 命은 운자가 아니다.

㉡ 한시 시화전 기획·운영하기

3. 다음은 2022 개정 고등학교 ‘언어생활과 한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에 따른 연구 수업을 위해 작성한 <수업 계획>의 일부와 예비 교사들이 나눈 대화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수업 계획>

학습 목표	○ 한자 어휘를 일상생활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성취 기준	○ 사회·문화 현상에 대응하여 생성된 한자 어휘를 파악하고 (㉠) 특성을 이해한다.
수업 자료	가시광선, 가지각색, 거중기, 곰탕, 공대, 교생, 달력, 사이버, 용수철, 티원, 포물선, 주총, 한은, 햇소문



학생들의 정확하고 풍부한 언어생활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언어생활과 한자’ 과목의 연구 수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요소를 수업 주제로 다루면 좋을까요?

이 과목은 올바른 언어생활과 원활하고 협력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에 중점을 두므로, 학생들의 어려움을 키울 수 있는 요소를 다루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과목에 보니 그러한 요소로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만들어진 여러 어휘를 조사·활용하도록 되어 있군요. 어떤 것을 예로 들 수 있을까요?

‘수업 자료’에서 예시를 든다면, (㉠)은/는 공대, 교생, 주총 등을 예로 들 수 있고, 혼종어는 (㉡)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한자 어휘를 파악하려 할 때, (㉠)이/가 주로 각 어휘의 첫 음절을 떼어서 만든 형태라면, 혼종어는 한자어와 고유어, 외래어가 다양한 형태로 결합한다는 점에 유의해서 지도해야겠네요. 논의된 것을 참고해 수업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에 들어갈 것을 대화 내용을 참고하여 쓸 것.
- 괄호 안의 ㉡에 들어갈 것을 대화 내용을 참고하여 쓸 것.
-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예 2가지를 <수업 계획>의 ‘수업 자료’에서 찾아 쓸 것.

[B형 3번] - 선행모의고사 9회 A형 1번

1. 다음은 2022 개정 한문과 ‘언어생활과 한자’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대화이다.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것을 漢字로 쓰고, <활동 결과물>을 참고하여 밑줄 친 ㉡에 해당하는 성취기준을 쓰시오. [2점]

<활동 결과물>

학생
○ 대상 : 신문 -한자 줄임말: 高速鐵-高速鐵道. 工大-工科學 -혼종어: 헛+所聞-헛소문. 告者+질-고자질. (㉠)+튼-하여튼

교 사 : 활동을 마쳤으면 자신이 만든 결과물에 대한 설명과 활동 소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 생 : 저는 교과별 신문에 나온 말 중에서 줄여서 쓴 말과 혼종어로 된 용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의외로 줄임말과 혼종어가 많았지만, 이렇게 어휘들을 이해하니 어휘력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 사 : 맞아요. ㉠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응하여 만들어진 한자 줄임말과 혼종어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 何如. ㉡ 사회·문화 현상에 대응하여 생성된 한자 어휘를 파악하고 조어 특성을 이해한다.

5. 밑줄 친 ㉠을 번역하고, 이 글을 지은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
漢字로 쓰고 풀이하시오. [4점]

有非子造無是翁曰 日有羣議人物者 人有人翁者 人有不人翁者 翁何或人於人 或不人於人乎 翁聞而解之曰 ㉠人人吾吾不喜 人不人吾 吾不懼 不如其人人吾而其不人不人吾 吾且未知人吾之人何人也 不人吾之人何人也 人而人吾 則可喜也 不人而不人吾 則亦可喜也 人而不人吾 則可懼也 不人而人吾 則亦可懼也 喜與懼 當審其人吾不人吾之人之人不人如何耳 故曰 惟仁人 爲能愛人能惡人 其人吾之人 仁人乎 不人吾之人 仁人乎 有非子笑而退 無是翁因作箴以自警 箴曰 子都之姣 疇不爲美 易牙所調 疇不爲旨 好惡紛然 盍求諸己

- 李達衷, 「愛惡箴并序」 -

[B형 5번] - 『고려시대 산문읽기 143쪽』 <愛惡箴> 李達衷

有非子造無是翁曰 日有羣議人物者 人有人翁者 人有不人翁者 翁何或人於人 或不人於人乎 翁聞而解之曰 人人吾 吾不喜 人不人吾 吾不懼 不如其人人吾 而其不人不人吾 吾且未知人吾之人何人也 不人吾之人何人也 人而人吾 則可喜也 不人而不人吾 則亦可喜也 人而不人吾 則可懼也 不人而人吾 則亦可懼也 喜與懼 當審其人吾不人吾之人之人不人如何耳 故曰 惟仁人 爲能愛人能惡人 其人吾之人 仁人乎 不人吾之人 仁人乎 有非子笑而退 無是翁因作箴以自警 箴曰 子都之姣 疇不爲美 易牙所調 疇不爲旨 好惡紛然 盍亦求諸己

유비자가 무시옹에게 찾아가서 이르기를, “지난번에 여럿이 인물을 평론하는 일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옹을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옹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 옹은 어찌하여 어느 사람에게는 사람대접을 받고, 어느 사람에게는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는가요?”하니, 옹이 그 말을 듣고 해명하기를, “남이 나를 사람이라 하여도 내가 기뻐할 것이 없고, 남이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여도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사람다운 사람이 나를 사람이라 하고,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것만 못하다. 나는 또한 나를 사람이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모른다. 사람다운 사람이 나를 사람이라 하면 기뻐할 일이고,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면 또한 기뻐할 일이다. 사람다운 사람이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면 두려워할 일이고,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 나를 사람이라 하면 또한 두려워할 일이다. 기뻐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마땅히 나를 사람이라 하고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인지 사람다운 사람이 아닌지를 살필 뿐이다. 그러므로 (孔子가) 오직 인한 사람이어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며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고 했으니, 나를 사람이라 하는 사람이 인한 사람인가?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 인한 사람인지?”라고 하였다. 유비자가 웃으면서 물러가니, 무시옹이 이것으로 잠을 지어 자신을 경계했다. 잠에 이르기를, “자도의 어여쁜 것이야 누가 아름답다 하지 아니하며, 역아가 음식 만든 것이야 누가 맛있다 하지 않으랴? 좋아함과 미워하는 것이 어지러운 때, 어찌 자기 몸에서 반성하지 아니하랴?”

원주용 선생님의 더 많은 합격 비법이 궁금하다면?

2026학년도 희소 티처스 설명회에서
확인하세요!

교원 임용 1위,
우리는 최초를 만듭니다.

 KG 에듀원 교원임용 희소/샘플러스